

박정아 “완장 무겁지만 성공적인 세대교체 알릴 것”

페퍼스 사상 첫 국가대표 주장 맡아

여자배구 대표팀 주장 박정아(30)는 2년 전만 하더라도 팀에서 막내 축에 속했다.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일군 당시 대표팀의 평균 나이는 28.4세로 박정아는 그중 5번째로 어렸다.

그런데 김연경, 양효진, 김수지 등 베테랑들이 잇따라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어느새 고참이 됐고 주장 완장까지 찼다.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하는 대표팀의 평균 나이는 25.8세로 도쿄올림픽 때보다 3살 가까이 어렸다.

세터 엄혜선(32)이 최고령이고 30대가 5명, 20대는 11명이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선수는 이주아·문지윤(이상 23세), 정호영·이다현·정지윤·김다은·김지원(이상 22세) 등 7명이다.

지난해 12전 전패 승점 0의 수모를 당한 만큼, 올해는 선전을 거둬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알릴까 한다는 책임감이 박정아의 어깨에 놓여있다. 최근

2년 전만 하더라도 막내 축 속해 베테랑들 물러나며 어느새 고참 발리볼네이션스리그 선전 다짐

“올림픽 예선·아시안게임 중요 호흡 맞추고 조직력 길러 대비 고문 한유미·김연경 존재감 도움”

FA를 통해 광주 AI페퍼스로 옮긴 박정아는 페퍼스 사상 첫 국가대표 주장 완장을 찬 선수다.

박정아는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취재진과 만나 “(작년에는) 공수 모든 면에서 실력이 부족했다”며 “배구적인 것을 떠나 (국가대표를) 처음 해 보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시즌에 국제대회를 나간다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다”고 돌아봤다.

수십 명의 취재진 규모를 보며 “오늘 특히 완장이 무거운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한 박정아는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다들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치와 어드바이저(고문) 자격으로 대표팀에 합류한 한유미와 김연경의 존재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는 “언니들이 어려운 부분을 먼저 물어줘서 제가 더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연경 언니는 해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고 말했다.

박정아는 김연경의 어드바이저 호칭이 어색한 듯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기도 했다.

올해는 VNL을 시작으로 9월부터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2024 파리올림픽 세계 예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박정아가 VNL 나머지 시선을 두는 이유다.

박정아는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올림픽 예선전과 아시안게임”이라며 “점점 호흡과 조직력을 길러 그때쯤엔 난만 마주쳐도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입소 첫날에도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고 선수들끼리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3 발리볼네이션스리그 여자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주장 박정아가 16일 오후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퍼스 선수단이 최근 경북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페퍼저축은행 배구 선수단과 함께하는 배구 교실'을 열고 학생 선수들을 격려했다. <페퍼스 제공>

문경 전지훈련 마친 페퍼스 “이번 시즌 지켜보라”

기초체력 강화·경기력 향상 중점 유소년 배구교실 열고 저변 확대도

광주 AI페퍼스 배구단(구단주 장대영)이 2023~2024시즌을 위해 담금질에 돌입했다.

페퍼스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경북 문경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을 실시했다.

문경 훈련에는 주장 이한비, 채선아 등 11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AI페퍼스 박민범 코치가 튀르키예 트리아아웃 현장을 방문한 감독과 코치진을 대신해 전지훈련을 총괄했다.

페퍼스는 선수들의 햄스트링 부상 예방과 관절 가동성과 근력을 기르기 위한 맨몸·밴드 위주의 재활, 보강 훈련을 했다.

기초 체력을 강화를 위해 문경새재와 선유동천 트래킹도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와 달리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본역량을 끌어올렸다.

페퍼스는 유소년 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배구교실도 진행했다.

페퍼스 선수들은 경북 문경 점촌중학교를 방문해 '페퍼저축은행 배구 선수단과 함께하는 배구 교실'을 열었다.

선수들은 점촌중학교 2, 3학년 학생 190여 명에게 배구 기본기를 지도했다.

배구 동아리 학생, 교사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 배구 시합을 했다.

김동원 AI 페퍼스 단장은 “올 한 해 최고 기량으로 원하는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전지훈련은 개인 역량을 강화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팀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배구 교실을 통해 유소년 배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기쁘다. 배구 꿈나무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에서 열린 이번 전지훈련은 개인 역량을 강화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팀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배구 교실을 통해 유소년 배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해 기쁘다. 배구 꿈나무를 위한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병영 광주태권도협회 이사, 세계선수권 한국대표 감독에

문병영(사진) 광주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오는 29일부터 6월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 대표팀 남자부 감독으로 선임됐다.

문 전무는 지난 40여 년간 선수와 지도자를 거쳐 국제, 국내 심판으로 활동한 태권인이다.

2017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광주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선임돼 국제심판 교육, 전임감독제 도입, 꿈나무 발굴·육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5년 조선대학교총장배 국제태권도품새대회 초대 조직위원장을 맡아 국제대회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광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와 광주국제태권도아카데미의 창설로 이어져 광주태권도 위상을 끌어올렸다.

한국 태권도 남자대표팀은 지난해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2017년 무주, 2019년 맨체스터 대회에 이어 3연패를 차지한 바 있다. 남자대표팀은 올해 4연



패에 도전한다.

문 감독은 “태권도 중 주국 대표팀 감독으로 세계대회에 나서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대회 3연패를 한 남자대표팀의 4연패에 대한 부담감이 크긴 하지만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현장에서 최상의 경기력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6명 전원 메달

슬로베니아 오픈 서수연 단식·박진철 복식 등 금 2·은 5 획득

2023 슬로베니아 오픈대회에 참가한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사진>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지난 9~12일 슬로베니아 라스코에서 열린 대회에서 출전 선수 6명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5개를 획득했다.

서수연은 여자 단식(스포츠등급 2등급)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진철(2등급)은 남자 복식(MD4)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박진철은 차수용(대구시장애인체육회·2등급)과 팀을 이뤄 출전한 남자 복식(MD4)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남기원은 남자 단식(1등급) 결승에서 김현욱

(울산시장애인체육회)에게 2-3으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김영건(광주시청)도 남자 단식(4등급) 결승에서 오즈투르크 압둘라(터키)에게 1-3으로 져 은메달에 만족했다.

김영건은 김정길(4등급)과 함께 출전한 남자복식(MD8) 결승에서 바우스 발렌틴-슈미트버거 토마스(독일) 조에 0-3으로 져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밖에 김정길은 윤지유(성남시청)와 호흡을 맞춘 혼합 복식(XD7)에서, 김성욱은 여자 단식(7등급)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서석중·고검도 선전... 오승준 개인전 우승

서석중·고등학교 검도부(사진)가 제6회 대한검도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선전했다.

17일 광주시검도회에 따르면 오승준(서석중 3년)이 최근 경남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중등부 통합 개인전 결승에서 전주현(대전갑천중)을 2-0으로 제압했다. 임우찬(서석고 3년)은

고등부 통합개인전 결승전에서 김도윤(인천고)에 2-0으로 패해 3위에 올랐다.

서석고는 단체전에서도 활약했다.

1학년부와 2학년부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고등부 통합단체전에서도 3위를 마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2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울지마 엄마
3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극장판 리틀 슈퍼맨 생생
4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5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울지마 엄마
6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슬픔의 심각형
9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거신: 바람의 아이,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난자 배꼽수비대
7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8관	스즈메의 문단속, 존 워 4, 스트리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광주상설공연

2023년 5월

광주상설공연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오로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